

강진군, 음식특화거리 홍보 영상 제작 관광객 유치 박차



강진군이 강진 음식의 맛과 멋이 가득한 음식특화거리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

마량 미향횃집거리·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중심 촬영 국내·외 관광객에 강진 음식 매력과 우수성 홍보

치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6일, 음식특화거리 홍보 영상 제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남도에서 지정한 남도음식거리로 강진군의 대표적인 '마량 미향횃집거리'와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를 중심으로 촬영했다. 영상에는 전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풍요로운 마량항 횃집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한상차림을 비롯해 아름다운 일몰과 풍경, 그리고 지역민들의 생동감 있는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는 연탄불 위에서 지금 지금 구워내, 매콤한 감칠맛에 훈연의 맛을 더한 돼지불고기를 비롯해, 돼지불고기 밀키트, 관광명소인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하멜표류기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인 '하멜' 콘텐츠를 활용한 하멜촌커피와 하멜맥주,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행사 등,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두루 담았다. 특히,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영상을 통해, 남도 맛의 1번지 강진으로 관광객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강진군은 이번 영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들에게 강진 음식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리고, 음식특화거리 방문을 유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영상은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관내 LED전광판을 통해 6일부터 공개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음식특화거리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국구 맛집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진음식의 홍보와 특화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맛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9월 26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분외식산업개발원과 전남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봄동,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대회 채소류 부문 대상 수상

해풍맞고 자라 맛좋은 진도봄동의 우수성 인정받아

진도봄동이 '제32회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3일부터 경기도 농업수원유통센터 일원에서 3일간 열린 제32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대회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출품한 농산물을 ▲곡류 ▲과일류 ▲채소류 ▲특작류 ▲화훼·특별품목 등 부문별로 분류, 품질 평가를 거쳐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했다.

채소류 부문에서 장관상을 받은 진도봄동은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일품이고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며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 인기가 좋다. 수상을 한 박일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장은 "첫 출품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진도봄동과 함께 우리 지역의 다른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더욱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진도봄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진도군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판매를 통한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시대 개막

김성 군수 "첨단 농업기술 보급의 전초기지 역할 할 것"

장흥군은 7일 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식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왕윤채 장흥군의회장, 박형대·윤명희 도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박홍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개청식은 인제육성 장학금 기탁,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식수 식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열려 다양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새로 문을 연 농업기술센터는 분관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사무실, 대회의실, 교육장, 실험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화재 예방시설을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적용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이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함께 조성된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특화작목 실증재배를 위한 유리온실과 연동형 온실을 구축해 안정적 농업기술을 보급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막식과 더불어 개최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는 장흥군에서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대표 농업인학습단체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회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우리가라 계승 '동백난타'팀과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천관 우리 소리'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날 농업 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학습단체 10명은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전국 최우수센터 선정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활성화 성과 인정

해남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3년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가공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농가공 창업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실시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각종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습식가공장, 건식가공장, 자가품질실 등을 갖추고, 60여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가운데 엑상차와 잼, 청 등 습식 가공품과 분말, 건조, 스택 등 건식 가공품을 생산해 농업인들의 가공 장업을 기술지원하고 있다. 생산자 공동체인 땅끝이랑협동조합 조합원이 100명을 넘어섰으며, 각종 가공장업을 통한 기

술교육과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남 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에 큰 성과를 보이며, 고저항성 전분 함유 단호박가루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하고, 제과제빵용, 음료 등 제품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 연말에는 제2동을 준공할 예정으로, 가공장과 상품개발실, 교육실 등을 확충해 더욱 많은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가공장업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센터 선정은 해남군의 앞서가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해남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센터가 중심이 되어 더욱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